

# 완도 정착해녀의 어휘 연구\*

김경표(전남대)

## 〈목 차〉

- |                         |       |
|-------------------------|-------|
| 1. 서론                   | 3. 결론 |
| 2. 완도 정착해녀의 물질 관련 어휘 연구 | 참고문헌  |

## 1. 서론

완도군에는 자생해녀와 제주도에서 출향하여 정착한 해녀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청(1935)에서 펴낸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에서는 제주 해녀가 국내 각 지역으로 나갔는데 전남의 경우에는 400명이 출가하였다고 한다.<sup>1)</sup> 제주해녀는 육지에 물질하러 와서 몇 주에서 몇 달을 거주하는데 이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665). 또한 제63회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22년 11월 25일)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보통 제주도를 떠난 해녀를 '출향해녀'나 '출가해녀'라고 말하는데 '출가(出稼)'는 일본식 한자로 '테카세기'를 말한다. '테카세기(出稼)'는 일정한 기간 타향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이른다.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서 물질하는데 안미정(2019: 84)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바깥에 갔다 왔다, 육지 갔다 왔다, 초용(첫 바깥물질) 갔다 왔다, 영업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데

생활을 하다가 완도군에서 결혼하고 정착하였다.<sup>2)</sup> 이들은 제주 방언과 전남 방언을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40년 이상을 완도군에서 물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언어 양상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한다. 본고는 완도군 보길면, 신지면, 약산면, 금일읍에서 활동하는 완도 정착해녀의 언어를 구술조사한 후에 전사하고 어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들의 언어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 완도군의 해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광민(1992)의 평일도 해녀의 어로조직과 기술 연구, 광유석(1991)의 청산도 해녀의 도구와 해초채취 연구, 이경아(1997)의 신지도 패류 채취와 기술 연구, 양원홍(1998)의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가 있다. 완도군이 포함된 연구는 송기태(2015)의 신안과 완도의 무례꾼(해녀)의 정체성과 어로활동에 대한 연구, 박종오(2015)의 서남해 지역 해녀의 어로 기술 습득 방법과 어로 환경 적응 양상 연구, 전남여성플라자(2013)의 여수·신안·완도·고흥 지역 해녀의 실태연구, 국립무형유산원(2015)의 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연구가 있다. 해녀 언어에 대한 연구는 신우봉(2017)의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한 제주 해녀 도구어의 낱말 발 연구, 김지숙(2020)의 언어 접촉으로 동해안 지역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최은순·안미정(2021)의 일본에서 활동한 제주 해녀의 언어혼용 양상 연구, 김경표(2021)의 전남 신안군의 자생해녀 언어 연구가 있다. 전남 완도군 해녀의 선행 연구들은 해녀의 해산물 채취 방법과 기술, 마을 어업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완도 정착해녀의 생애사를 다룬 논의가 한편 있었다. 그리고 해녀 언어 연구는 제주해녀, 육지해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완도 정착해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2014년 시·군 해양수산과에서 제공한 전남지역 해녀의 현황을 보면 완도군

---

이는 제주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2) 본고에서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제주해녀', 제주도를 떠나 완도에서 정착한 해녀를 '완도 정착해녀', 완도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 활동하는 해녀를 '완도 자생해녀'라고 칭한다.

은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생일면에서 91명의 해녀가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생해녀와 정착해녀의 구분은 되지 않았다. 완도 정착해녀를 조사하기 위해 해녀 관련된 자료집, 동영상 등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도 정착해녀는 보길면, 신지면, 약산면, 금일읍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보길면은 2021년 8월 3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지면은 2022년 1월 7일과 18일에 현장 조사를 하였다. 약산면은 2022년 8월 2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일읍은 2022년 12월 29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보자는 해녀 문화를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을 선정하고 미리 준비한 해녀 생애와 물질 작업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sup>3)</sup>

완도 정착해녀의 생애와 물질 작업에 대해 구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전사한 후에 어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완도 정착해녀의 언어 속에 제주 방언이나 전남 방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완도 정착해녀의 물질 관련 어휘 연구

완도 정착해녀는 제주해녀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며 완도군에 정착하면서 완도 방언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완도 정착해녀의 어휘를 확인하기 위해 양희주(2015)에서 정리한 해녀 명칭, 바다 환경, 작업류, 작업 도구, 채취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제보자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함	성별	나이	출신지	조사 지역	완도 거주기간
한○○	여	84	구좌읍 김녕리	보길면 중리	54년 정도
이○○	여	74	한림읍 금능리	신지면 동고리	50년 정도
홍○○	여	67	한림읍 협재리	약산면 해동리	40년 정도
오○○	여	63	구좌읍 평대리	금일읍 동백리	40년 정도



완도군 지도(카카오맵 지도 편집)

## 2.1. 해녀 명칭

해녀는 충청어로 부르는 명칭과 능력과 기량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주해녀	완도 정착해녀
충청어		해녀, 줌녀, 줌네, 잠수, 줌수	자기/누구 엄매(보길면), 잠수/해녀(신지면) 해녀/보재기(약산면), 잠수/해녀(금일읍)
기 량	상 군	고래줍녀, 상줍네(상줍수), 왕줍네(왕줍수), 줌네(큰줍수)	상군(보길면), 상잠수(신지면) 상점녀(약산면), 상군(금일읍)
	중 군	중잠수, 중줍네, 중줍수, 중해녀	중군(보길면), 보통(신지면) 중점녀(약산면), 중군(금일읍)
	하 군	갯줍네(갯잠수, 덕줍수), 하줍녀(하줍네, 하줍수)	똥군(보길면), 어린 잠수(신지면) 소점녀(약산면), 하군(금일읍)

[표] 해녀 명칭 비교

해녀 충청어를 살펴보면, 완도 정착해녀도 제주해녀처럼 ‘해녀, 잠수, 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길면 정착해녀는 특이하게 ‘자기나 ‘누구 엄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sup>4)</sup> 약산면 정착해녀는 ‘해녀’를 ‘보재기/보재기’

라고도 말하였다. 《제주어 사전》을 보면, 어부를 가리키는데 약산면에서는 해녀를 지칭하고 있어서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지숙(2020: 203)에서는 동해안 지역에서 ‘보지기’가 해녀 또는 제주해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고 한다. ‘보재기/보제기>보지기’는 ‘ㅁ/ㅅ’의 음운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동일한 어휘인데 제주도에서는 어부를, 약산면에서는 자생해녀를, 동해안 지역에서는 자생해녀나 제주해녀를 가리키고 있어서 지역마다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해안 사람들이 제주도의 ‘보지기’를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명칭으로 인지해 해녀 직업을 하대하는 말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약산면 또한 해녀 직업을 하대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 같다.

제주해녀는 능력과 기량에 따라 그 명칭을 상군, 중군, 하군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제주해녀의 위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완도군 정착해녀도 상, 중, 하로 해녀 명칭이 서열화되어 있지만 활동하는 해녀가 많지 않고 물질 활동 기간이 오래되어서 제주해녀처럼 위계가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해녀를 ‘누구 엄매’처럼 부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완도 정착해녀는 해녀 명칭으로 ‘해녀’, ‘잠수’, ‘점녀’를 사용하였는데 완도 자생해녀도 ‘해녀, 잠수’를 사용하였다. 완도해녀는 해녀 명칭을 말할 때 제주해녀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바다 환경

해녀들의 작업장인 바다는 재료와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주해녀	완도 정착해녀
재료	들랑창, 모살바당, 작지바당, 펄바당	모래바다, 자갈밭, 빨바다(보길면) 모래바다, 빨바다(신지면)

- 4) 전사 자료에는 ‘해녀는 이름을 불르제’라고 하면서 ‘자기’와 ‘누구 엄매’를 말하기 때문에 이는 해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친근함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래바다, 빨바다(약산면), 독밭, 빨바다(금일읍)
공간	좁, 엉덕, 여, 지미와 굴형지	글앞, 바다께(보길면), 새끼, 갈매섬(신지면) 여, 독섬, 금오섬(약산면), 숨은 여(금일읍)

## [표2] 바다 환경 명칭 비교

두 지역 모두 '바위, 모래, 자갈, 펄'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바다를 불렀다. 제주해녀는 '모살, 작지'처럼 방언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완도 정착해녀는 '모래, 자갈, 빨'처럼 표준어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금일읍 정착해녀는 자갈이 있는 바다를 '독밭'이라고 하였다. '독'은 '돌'의 전남 방언이고 '밭'은 '밭'의 전남 방언이다. 바다 공간과 관련된 어휘는 제주해녀와 차이가 있었다. 완도 정착해녀와 완도 자생해녀는 바다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어휘를 사용하 기보다는 작업하는 섬의 이름이나 공간을 사용하였다. 보길면의 '글앞'은 가까운 곳이라고 하였는데 '그리+앞'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는 '그쪽으로'를 의미하므로 '그쪽 앞'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다께'는 작업하는 중리 바다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바다+께'로 분석할 수 있다. '께'를 '그때 또는 장소에서 가까운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보면 '바다쪽'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약산면을 보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가리키는 '여'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섬'도 사용하고 있다. '독'은 '돌'의 전남 방언으로 '돌섬'을 가리킨다. 금일읍은 썰물에 잠겼던 여가 드러난 것을 '숨은 여'라고 하였다.

바다의 재료는 두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제주해녀는 방언 어휘를 사용하는 반면 완도 정착해녀는 주로 표준어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전남 방언도 사용하였다. 완도 자생해녀도 '모살바다, 자갈바다, 모래사장' 등 표준어와 전남 방언을 함께 사용하였다. 바다 공간은 제주와 완도의 바다 환경이 다르고 공간을 이름 짓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

## 2.3. 작업류

해녀의 작업은 시간, 거리, 공간,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주해녀	완도 정착해녀
시간	안물, 꺾바르, 밤바르	아침무레(보길면), 아침무레/물질(신지면) 아침물질(약산면), 물떼 간다(금일읍)
거리	꺾물질, 앞바르/난바르	가차운 바다(보길면), (신지면) 앞바다/면바다(약산면), (금일읍)
공간	나리, 불턱(봉덕), 탈의장	(보길면), 다시마 건조장(신지면) 불 쪼이는 곳(약산면), 화닥, 기관실(금일읍)
행위	개뉘기, 물질, 도둑물질, 숨비소리, 헛숨	(보길면), 흠벳소리(신지면) 손비소리(약산면), 순비소리(금일읍)

[표3] 해녀 물질 작업 명칭 비교

완도 정착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물질, 무레질’이라고 하였다. ‘물질’은 ‘물+질’이고 ‘무레질’은 ‘물+에+질’로, ‘-질’은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물에서 하는 일을 의미한다. 완도 정착해녀는 아침에 주로 작업을 하러 가며 이를 ‘아침무레, 아침물질’이라고 하였다. 작업하는 거리와 관련하여 제주해녀처럼 세분화되지 않았으며 ‘가차운(가까운) 바다’나 앞바다에서 물질하거나 면바다에서 물질한다고 하였다. 공간과 관련하여 완도 정착해녀는 공간을 지칭할 때 제주해녀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지면은 미역은 없고 다시마를 건조하는 건조장만 있다고 한다. 물질을 하는 도중에 불을 쪼며 몸을 녹이는 곳을 제주도는 ‘불턱’, 전남은 ‘불터’라고 한다. 그런데 완도 정착해녀는 ‘불을 쪼는 곳’이나 ‘화닥’이라고 말하였다. 탈의장은 없었고 집에서 옷을 갑아 입고 물질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 기관실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다. 행위와 관련하여 해녀들이 물질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뱃는 것을 전남에서는 ‘휘께소리’, 제주도에서는 ‘숨비소리’라고 한다. ‘휘께소리’는 ‘휘께+소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휘’는 ‘숨을 한꺼번에 세계 내쉬는 소리’로 전남 방언에 휘파람을 뜻하는 ‘휘가랏’이 있다. ‘-께’는 그 어원을 알 수 없으나 ‘휘께’를 ‘물질하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뱃을 때’로 보면 ‘그때 또는 그 장소에서 가까운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숨비소리’는 ‘숨비+소리’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제주도 방언에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숨비다’라는

말이 있어 이 동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완도 정착해녀는 전남에서 사용하는 ‘휘게소리’는 사용하지 않고 ‘흠벧소리,<sup>5)</sup> 손비소리, 순비소리’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제주해녀의 ‘숨비소리’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완도 자생해녀는 ‘휘파람’이나 ‘후게소리’를 사용하고 있어 완도 정착해녀와 차이가 있었다.

완도 정착해녀는 아침에만 물질을 하고 거리와 관련된 어휘는 세분화되지 않았다. 공간을 지칭할 때 제주해녀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행위와 관련하여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은 어휘를 사용하였다.

#### 2.4. 작업 도구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할 때 사용한 도구는 채집용 도구, 채취용 도구, 보조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해녀	완도 정착해녀
채집용	마다리, 망사리, 바구니, 조락	망사리, 조락(보길면) 망사리/망아리, 조락(신지면) 두름박망(약산면), 망사리, 조락(금일읍)
채취용	갈퀴, 빗창, 소살, 까꾸리/호맹이, 호미	갈고리, 피창(보길면) 까꾸리/호맹이, 비창, 낫(신지면) 갈고리/호맹이, 비창, 작살(약산면) 갈퀴, 비창, 낫(금일읍)
보조	닷돌, 닷줄, 방맹이	닷줄(보길면), 닷돌, 닷줄(신지면) 닷돌(약산면), 닷돌, 닷줄(금일읍)
		테왁
	박테왁, 두름박, 버국테왁, 나이롱테왁/스폰지테왁	두름박(보길면), 두름박/두령박(신지면) 두름박/두렵박(약산면), 두름박/두르박(금일읍)

[표4] 작업 도구 비교

5) ‘흠벧’은 ‘숨비소리’의 ‘숨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전남 방언에서 ‘힘’을 ‘심’이라고 하는 ‘ㅎ’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흠벧’의 ‘ㅎ’은 전남 방언의 영향을 받아 원래는 ‘숨비’의 ‘ㅅ’인데 ‘ㅎ’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으로 ‘흠벧’이라고 한 것 같다.



제주해녀는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망사리’라고 한다. 보길면과 신지면 정착해녀는 ‘망사리, 망아리’라고 하였고 약산면 정착해녀는 ‘두름박망’이라고 하였다. ‘두름박망’은 전남 방언 ‘두름박’과 한자어 ‘그물 망(網)’이 결합한 것으로 테왁에 다는 그물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김지숙(2020: 206)에 의하면 동해안 육지해녀도 ‘망사리, 망시리’라고 한다.<sup>6)</sup> 《제주어 사전》에 ‘망사리, 망시리, 망아리’가 나타나는데 동해안 육지해녀나 완도 정착해녀는 해산물을 담는 그물을 말할 때 제주해녀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sup>7)</sup> 채집용 도구로 ‘조락’도 있다.<sup>8)</sup> ‘조락’은 ‘졸+악’ 구성으로 ‘졸다’는 ‘잘다’의 제주 방언으로 크기가 작다는 의미이고 ‘-악’은 접미사이다. 망사리가 크고 테왁에 달려있다면 조락은 크기가 작으며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메어서 착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삼을 잡으면 소라와 고둥을 같이 넣으면 해삼이 상하니까 조락에 넣는다고 한다. 약산면 정착해녀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물질 방법이 아닌 산소통을 메고 해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목에 조락을 메고 작업을 한다고 한다.

채취용 도구로 문어나 성게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는 ‘갈고리, 까꾸리, 호멍이’가 있는데 제주해녀의 어휘와 차이가 없다. ‘호멍이’는 전남 방언에서 끝이 뾰족하고 삼각형인 농기구 ‘호미’를 가리키는데 채취용 도구 ‘호멍이’는 끝이 ‘기’자형 날로 되어 있는 갈고리로 지칭 대상에 차이가 있다.<sup>9)</sup> 채취용 도구 ‘호미’는 낫에 해당되는 도구로 미역이나 툫, 모자반을 벨 때 사용한다고 한다.<sup>10)</sup> 전복을 딸 때는 ‘비창’이나 ‘피창’을 사용하는데 제주해녀의 ‘빗창’과

6) 이 외에도 ‘망탕가리, 꼴망태, 종다래끼, 망태기’도 나타났다.

7) 신안군 해녀는 ‘홍서리’라고 부른다.

8) 제주도에서는 ‘조레기’라고도 하는데 그물 따위로 잘게 쪼아 만든 작은 주머니를 말한다. 신우봉(2017)에서는 ‘크기’의 의미자질로 망사리와 조락을 구분하였다.

9) 제주도에서는 채취 대상에 따라 ‘성게호멍이, 오분제기호멍이, 문게호멍이/문게까꾸리’라고 부른다.

10) 양희주(2015: 47)에서는 밭에서 쓰는 호미를 ‘비호미, 돌호미’라고 부르고 바닷물에서

큰 차이가 없다. ‘빗창’에서 ‘빗’은 ‘전복’의 제주도 방언으로 ‘전복을 따는 창’으로 볼 수 있다. 신지면 정착해녀는 미역을 벨 때 ‘낫’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약산면 정착해녀는 물고기를 쫓 때는 ‘작살’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소살’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보조도구로 ‘닷돌, 닷줄’이 있는데 ‘닷돌’은 닷처럼 사용하는 돌을 말하며 ‘닷줄’은 망사리와 닷돌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주해녀의 어휘와 차이가 없는데 약산도 정착해녀는 산소통을 메고 목에는 조락을 걸고 작업하기 때문에 ‘닷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닷줄’은 길어야 되는데 얇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다섯 발 정도로 하고 깊은 곳은 열 발 정도로 사용한다고 한다.<sup>11)</sup> 완도 자생해녀는 ‘닷줄’을 ‘땃배’로, ‘닷돌’을 ‘몽뚝’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남 방언으로 완도 정착해녀와 차이가 있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엄을 치며 작업하러 갈 때나 물질 중간에 올라와 잠깐 숨을 고르며 쉬는 도구로 ‘테왁, 두름박’이 있다. ‘테왁’은 ‘테+왁’ 구성으로, ‘테’는 ‘떼’의 제주 방언으로 ‘나무나 대나무 따위의 일정한 토막을 엮어 물에 띄워서 타고 다니는 것’이다. ‘왁’은 ‘박’과 관련이 있는데 ‘테왁’은 ‘테박>테박>테왁’의 변화과정을 거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해녀는 ‘박, 버국, 스펀지’처럼 테왁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양한데 완도 정착해녀는 재료와 상관없이 ‘두름박, 두렁박, 두럼박’이라고 말하였다.

## 2.5. 채취물

완도 정착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바다 식물과 바다 동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하는 호미를 ‘정게호미, 중게호미’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11)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퍼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제주해녀	완도 정착해녀
바 다 식 물	메역, 뭍, 툓	미역, 모자반, 툓(보길면), 보리미역, 툓(신지면) 미역, 다시마, 모자반, 툓(약산면) 몰자반/개물, 미역 (금일읍)
	청각, 줌프레	(보길면), 청각, 파래(신지면), (약산면), 청각, 파래(금일읍)
	우미, 천초, 천추	우무, 천추(보길면), 우무, 천초(신지면) 우무(약산면), 우묵가사리, 천초(금일읍)
바 다 동 물	구쟁기, 군벚, 굴멍이, 물꾸러, 보말, 줌복	소라, 고동, 문어(보길면) 소라, 군벚, 군소, 문어, 전복(신지면) 소라, 고동, 군벚, 문어, 전복(약산면) 빨소라, 문어, 전복 (금일읍)
	구살, 해삼	성게, 해삼(보길면), 성게, 해삼(신지면), 성게, 해삼(약산면), 성게, 해삼(금일읍)

[표5] 채취물 명칭 비교

완도 정착해녀들이 채취하는 바다 식물 중 갈조류 식물에는 ‘미역, 다시마, 모자반, 툓’이 있다. 제주해녀 어휘와 비교해 보면 완도 정착해녀는 표준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해녀들이 사용하는 ‘메역’은 ‘머육>매육>메역>미역’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19세기에 나타난 어형이다. 김순자(2015: 51)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미역 채취 시기에 따라 일찍 캐는 미역을 ‘조곽(早藪)메역’, 가장 늦게 채취한 미역을 ‘만괵메역’으로<sup>12)</sup> 명칭이 분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신지면 정착해녀의 경우에는 보리가 날 때 채취하는 ‘보리미역’이 있었다.<sup>13)</sup> ‘모자반’이나 ‘툓’은 있지만 가치가 없어서 반찬으로 먹을 정도만 채취한다고 한다. 금일읍 정착해녀는 ‘모자반’을 전남 방언인 ‘몰자반, 개물’이라

12) ‘만괵’은 사전에 없는데 ‘조곽’과 대응되므로 늦은 미역인 ‘만괵(晩藪)’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순자(2015: 52)에서는 ‘조곽’이 ‘조물, 첫물’ 형태로도 나타나 ‘만괵’을 ‘끝물’로 보았다.

13) 김순자(2015: 67)에서 제주해녀는 바다에 들어가 낮이나 손으로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즈물다’라고 하는데 완도 정착해녀는 이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개몰’은 ‘개+몰’로 ‘개’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의미하고 ‘몰’은 모자반의 전남 방언으로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있는 모자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약산면 정착해녀는 미역은 채취하면 업체가 저울을 달아 바로 사 가지만 다시마는 먼저 말리면 수협에서 입찰하여 경매에 부친다고 한다.

녹조류 식물에는 ‘청각’과 ‘파래’가 있는데 ‘청각’은 김치에 넣는데 줄 구조물을 이용해 기르며 8월에서 9월까지 채취한다고 한다. ‘파래’는 파래지를 담가 먹을 정도만 채취한다고 한다. 홍조류 식물에는 ‘우무, 천초, 천추’가 있는데 제주해녀 어휘와 차이가 없다. ‘우무’는 ‘우뭇가사리’인데 《물보(物譜) 상:4》에 ‘鹿角菜 치가스리 우무가스리’가 나온다.<sup>14)</sup> 제주해녀의 ‘우미’는 ‘우무’에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남 방언에서 ‘하루, 노루’가 ‘하리, 노리’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순자(2015: 53)에 의하면 ‘한천’은 일본식 한자어 ‘한천(寒天, かんてん)’에서 온 말이며<sup>15)</sup> ‘천초(天艸)’ 역시 한천에서 파생하여 방언형으로 고착화된 어휘로 보고 있다. 신안군 해녀는 ‘우무’나 ‘우뭇가사리’를 사용하는데 제주해녀는 ‘한천, 천초, 천추’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완도 정착해녀는 전남 방언의 영향을 받아서 ‘우무’를 사용하지만 제주해녀의 영향도 받아 ‘천초, 천추’와 같은 어휘들도 사용하였다.

완도 정착해녀들이 채취하는 바다 동물 중 연체동물은 ‘소라, 고둥, 군벚, 군소, 문어, 전복’이 있다. 제주해녀 어휘와 비교해 보면 완도 정착해녀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라’의 경우에 ‘구쟁기’라고 말하지 않았으며<sup>16)</sup> 완도 정착해녀는 금어기인 6월에서 7월까지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채취한다고 하였다. ‘군벚, 군소’는 물질하다가 나오면 채취하고 제주해녀의 어휘는 사용하지 않았다. ‘문어’

14) 우리말샘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져온 것이다.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39600&viewType=confirm](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39600&viewType=confirm))

15) 일본어 ‘ところてん’는 일본의 여름철 음식인 ‘도코로텐’이다. 우무채나 우무를 말한다.

16) 금어읍 출항해녀는 ‘소라’를 제주도에서는 ‘꾸지기’라고 하고 완도에서는 ‘뿔소라’라고 하였다. ‘꾸지기’는 ‘구제기’에서 ‘궀’ | ‘의’ 변화가 일어나고 ‘궀’이 ‘ㅍ’이 되는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서 생긴 것 같다.

는 ‘까꾸리’로 잡는데 제주해녀는 이 도구를 ‘몽게까꾸리’라고 한다. 문어를 잡는 도구는 제주해녀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채취물인 ‘문어’는 제주 방언인 ‘몽게’를 사용하지 않았다.<sup>17)</sup> ‘전복’은 전남 방언에서는 ‘전복’, 제주 방언에서는 ‘점복, 줌복’이라고 하는데 완도 정착해녀는 표준어를 사용하였다. 완도 자생해녀는 ‘전복’이라고 하였다. 전복은 보통 바다를 사서 양식을 많이 하는데 완도 정착해녀는 금어기인 9월에서 10월을 제외하고 자연산 전복을 채취한다고 하였다. 바다 동물 중 극피동물에는 ‘성게, 해삼’이 있다. 완도 정착해녀는 ‘구살’이라고 하지 않고 ‘성게’라고 말하였다. ‘성게’는 6월에 채취를 시작하는데 성게를 꺼서 보내거나 껍 채로 보낸다고 한다. 약산면 정착해녀는 ‘꺾 채로’는 ‘성게 꺾이 있는 그대로’라고 설명하였는데 ‘꺾’의 어원은 확인이 필요하다.

### 3. 결론

본 연구는 완도 정착해녀의 언어를 채록하고 전사한 후 해녀 명칭, 바다 환경, 작업류, 작업 도구, 채취물로 나누어 어휘적 분석을 하였다.

해녀 총칭어의 경우, 완도 정착해녀도 제주해녀처럼 ‘해녀, 잠수, 점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보재기’라는 말도 사용하였다. ‘보재기’는 해녀 직업을 하대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 같다. 제주해녀는 능력과 기량에 따라 그 명칭을 상군, 중군, 하군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완도 정착해녀도 상, 중, 하로 해녀 명칭이 서열화되어 있지만 지역마다 활동하는 해녀가 많지 않고 나이도 많아 제주해녀처럼 위계가 엄격하지는 않았다.

바다 환경은 두 지역 모두 ‘바위, 모래, 자갈, 펄’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바다를 불렀는데 완도 정착해녀는 제주해녀와 달리 ‘모래, 자갈, 뽕’처럼 표준어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바다 공간과 관련된 어휘는 제주해녀와 차이가 있었는데

17) ‘문어’의 제주 방언인 ‘몽게’를 알고 있으나 설명할 때 ‘문어’라고 말하였다.

바다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어휘를 사용하기보다는 작업하는 섬의 이름이나 공간을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해녀의 작업은 시간, 거리, 공간, 행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완도 정착해녀는 ‘아침무레, 아침물질’이라고 하였다. 작업하는 거리와 관련하여 제주해녀처럼 세분화되지 않았다. 공간과 관련하여 완도 정착해녀는 공간을 지칭할 때 제주해녀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행위와 관련하여 완도 정착해녀는 제주해녀의 ‘숨비소리’와 관련이 있는 ‘흠벳소리, 손비소리’를 사용하였다.

채집용 도구의 경우 완도 정착해녀는 해산물을 담은 그물을 말할 때 제주해녀처럼 ‘망사리, 망아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특히, 약산면 정착해녀는 전통적인 물질 방법이 아닌 산소통을 메고 해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목에 조락을 메고 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채취용 도구로 문어나 성게를 잡을 때 ‘갈고리, 까꾸리, 호맹이’를 사용하는데 제주해녀와 차이가 없었다. 보조도구로 ‘닷돌, 닷줄’을 사용하는데 신지면, 약산면 정착해녀는 산소통을 메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닷돌’이나 ‘닷줄’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보조도구로 ‘테왁, 두름박’도 사용하는데 제주해녀는 테왁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양한데 완도 정착해녀는 재료와 상관없이 ‘두름박, 두렁박, 두럼박’이라고 하였다.

완도 정착해녀는 갈조류 식물 중 ‘미역, 다시마, 모자반, 톳’을 채취하는데 제주해녀와 비교해 보면 표준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신지면 정착해녀는 미역 채취 시기와 관련하여 ‘보리미역’을 사용하였다. 녹조류 식물 중 ‘청각’과 ‘파래’도 있지만 많이 채취하지 않았다. 홍조류 식물 중 ‘우무, 천초, 천추’가 있는데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차이가 없었다. 완도 정착해녀는 연체동물 중 ‘소라, 고둥, 군벳, 군소, 문어, 전복’을 채취하고 극피동물 중 ‘성게, 해삼’을 채취하는데 제주해녀와 달리 표준어를 사용하였다.

완도 정착해녀는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아 해녀 명칭, 해녀의 작업 행위, 작업 도구, 홍조류 식물은 제주해녀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바다 환경 공간이나 작업 공간은 전남 방언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바다 환경이나 채취물을 말할 때는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완도 정착해녀가 제주해녀 어휘를 사용하지

만 표준어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해녀 스스로 해녀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완도군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면서 전남 방언보다는 표준어 구사를 더 지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방송 매체의 영향, 공기통을 메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방법의 변화, 바다를 임대한 후 채취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다. 본 연구는 해녀들의 언어 접촉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서남해 해녀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 완도 정착해녀, 제주해녀, 어휘적 분석, 물질 방법, 완도 방언, 제주 방언, 완도군

## 참고문헌

- 고광민(1992), 「平日島 '무레꾼'(海女)들의 組織과 技術」, 『島嶼文化』 1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97-122면.
- 곽유석(1991), 「청산도의 민속문화-생업도구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25-248면.
- 국립무형유산원(2015), 『서남해 해녀, 통소음악, 한지장』, 국립무형유산원.
- 김경표(2021), 「전남 신안군 해녀의 언어 연구」, 『한국언어문학』 116, 한국언어문학  
회, 5-31면.
- 김순자(2015), 「제주도방언의 해조류 관련 어휘 연구-미역, 우뚝가사리, 툫, 모자반  
을 대상으로」,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45-78면.
- 김지숙(2020), 「언어 접촉으로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방언학』  
32, 한국방언학회, 191-220면.
- 전남여성플라자(2013),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재)전남여성플라자.
- 박종오(2015), 「서남해 해녀의 어로방식 변화 고찰」, 『島嶼文化』 46, 목포대 도서문  
화연구원, 119-146면.
- 송기태(2015), 「서남해 무레꾼 전통의 변화와 지속」, 『실천민속학연구』 25, 실천민  
속학회, 207-245면.
- 신우봉(2017), 「해녀 도구어의 날말발 연구」, 『한국언어문학』 103, 한국언어문학회,  
71-94면.
- 안미정(2019), 『한국 잡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 양원홍(1998),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양희주(2015), 「제주해녀 어휘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1997), 「채취기술의 변화에 따른 어촌사회의 적응전략: 신지도 貝類 채취조  
직과 기술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 제주도청(1935), 『제주도세요람(濟州道勢要覽)』, 조선인쇄주식회사.
-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 사전(개정 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
- 최은순·안미정(2021), 「제주 해녀들의 초국적 이동과 언어혼용의 양상」, 『해양도시  
문화교섭학』 24,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75-110면.
- 사이트: <https://opendict.korean.go.kr>



[Abstract]

## A Study on the Vocabulary of Haenyeo Settled in Wando-gun

Kim, Gyoung-pyo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lexical analysis of the vocabulary of Haenyeo settled in Wando-gun. Wando's settlement Haenyeo used 'Haenyeo, Jamsu, Jeomnyeo' like the Jeju Haenyeo, but they also used 'Bojaegi', which reveals a negative perception of Haenyeo. And although the names of Haenyeo are ranked as upper, middle, and lower, the hierarchy is not as strict as that of Jeju Haenyeo because there are not many active Haenyeo and they are older.

Unlike Jeju Haenyeo, Wando's settlement Haeyeo used the standard language to name the sea. The vocabulary related to the sea space is named as the name or space of the island that works, unlike Jeju Haenyeo.

Wando's settlement Haeyeo called the work they did in the morning 'Achim-mule, Achim-mulji'. The vocabulary related to the distance of work was not as subdivided like Jeju Haenyeo and in relation to the space, Wando's settlement Haeyeo did not use the vocabulary of Jeju Haenyeo when referring to the space. Regarding the act, Wando's settlement Haenyeo used the 'Hombes-soli, Sonbi-soli',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Sumbi-soli' of Jeju Haenyeo.

As a collection tool, Wando's settlement Haenyeo used 'Mangsali, Mang-ali' like Jeju Haenyeo and Wando's settlement Haenyeo used 'Galgoli, Kkakkuli, Homeng-i' as a tool for catching octopus and sea urchi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Jeju Haenyeo's term. Haenyeo uses 'Dasdol, Dasjul' as a secondary tool, but Shinji-myeon and Yaksan-myeon Haenyeo did not use 'Dasdol, Dasjul' by

changing the method of collecting seafood. Haenyeo also uses ‘Tewag, Duleumbag’ as a secondary tool, and Wando’s settlement Haenyeo said ‘Duleumbag, Duleongbag and Duleombag.’

Wando’s settlement Haenyeo collected ‘Miyeg, Dasima, Mojaban, Tos’ among brown algae. However, unlike Jeju Haenyeo, they used standard language a lot. Shinji-myeon Haenyeo, used ‘Boli-miyeg’ regarding the time of seaweed harvesting. There are also ‘Cheong-gag, Palae’ among green algae, but they did not collect much. Among the red algae were ‘Umu, Cheoncho and Cheonchu.’ Among the mollusks, ‘Sola, Godung, Gunbeos, Gunso, Mun-eo, Jeonbog’ were collected, and among echinoderms, ‘sea urchin and sea cucumber’ were collected. However, unlike Jeju Haenyeo, Wando’s settlement Haenyeo used the standard language.

Wando’s settlement Haenyeo were influenced by Jeju Haenyeo and used Jeju Haenyeo’s vocabulary, but also used the Jeonnam dialect in relation to space. However, standard language was used more when talking about the marine environment or harvested products. The reason seems that they used standard language rather than the Jeonnam dialect due to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Haenyeo’s job or the difficulty of settling in the local area. In addition, it seems that standard language has been used mor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media, changes in collection methods, and changes in sales methods.

**【Key words】** : Wando’s settlement Haenyeo, Jeju Haenyeo, Lexical analysis, Collection methods, Wando dialect, Jeju dialect, Wando-gun

---

---

## 김경표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연구원

(61461)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117, 102동 703호

전자우편: haepyoda@naver.com

---

---

이 논문은 2023년 6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3년 7월 19일에 심사 완료되어 7월 22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